

전면 권역별 청소책임제 8월 1일부터 실시

전주시, 지역 환경관리원 권역수거 참여로 안정적 청소행정 서비스 제공 기대

전주시는 2023년 7월 도입한 '권역별 청소책임제'의 문제점 등을 보완·개선해 오는 8월 1일부터 수거 권역을 재조정해 '전면 권역별 청소책임제'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1년여간 권역별 청소책임제를 운영한 시는 운영과정에서 접수된 민원 1만2000여건을 분석하고,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문제점을 종합 검토해 왔다.

주요 개선 사항은 권역 편성 시 행정동을 구분·적용한 점이다. 앞으로는 한 개의 동은 한 개의 수거업체가 책임 수거해 시민의 수거업체 파악 및 책임소재가 명확해진다.

또 근로자 업무 수행 및 장비의 안정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권역 규모로 권역을 개편해 안정적인 수집·운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

정된다. 지역 환경관리원의 권역수거 참여로 대행·지역 혼합구역에서 발생했던 책임소재 문제를 명확하게 하는 등 지난 권역수거 체계에서 발생했던 문제점이 보완·개선된다.

이에 따라 시는 시 전체를 기존과 같이 12개 권역으로 나누면서, 대행 8개 권역과 지역 4개 권역으로 구분해 각 권역별 담당 책임하에 권역 내 청소와 모든 상상 쓰레기를 수거하는 전주시 전체를 전면 권역별 청소책임제로 개편한다.

시는 이번 개선 수거체계가 이전 권역수거 체계를 보완 시행하는 만큼 시행착오를 줄이고, 보다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이달 중 사전점검을 가진 후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시는 개선 수거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청소 미비 상황

과 쓰레기 다량 적치 및 수거 지연 상태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일인 8월 1일 전후로 시·구 합동으로 권역별 1대 1 담당팀을 편성해 청소수행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수거 체계 변경에 따른 시민들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권역수거 안내 전단지 1만매를 제작해 배포하고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내버스 승강장 BIS시스템과 전광판 등에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1회용품 줄이기 시민활동가와 MOU 기관·단체와도 연계해 개선 수거 체계 홍보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올해 7월부터 시행된 '생활폐기물 일불후 배출제'와 '재활용품 요일별 품목별 배출제'도 개선 수거 체계 시행과 맞물려 안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구했다.

이영섭 전주시 자원순환복지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권역 수거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지난 1년 동안 권역수거 시행에서 발생한 문제점 등을 보완 시행해 시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다만 수거체계 변경에 따라 시행 초기 쓰레기 수거에 약간의 혼선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다소 미비하더라도 시민들이 적극 협조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개선 권역별 청소책임제 시행으로 청소 주체가 명확해짐에 따라 권역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행 상태를 1년여 동안 종합 평가 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른 가·감점을 차기 대행업체 선정시에 반영하고 정년퇴직 등 인원 감소에 따른 인력을 지역 환경관리원 확충 혹은 대행업체 확대 등을 통해 대체할지 검토하는데 활용할 예정이다. /김욱기 기자



전주시는 올해 '전주페스타 2024'를 10월 한 달 총 12일간 매주 전주의 특색 있는 축제를 전주종합경기장 내에서 통합 개최한다. (지난해 전주페스타 개막 사진)

10월 전주 맛과 멋 '가득'

'전주페스타' 총 12일간 다채롭게 개최

전주시는 올해 '전주페스타 2024'를 10월 한 달 총 12일간 매주 전주의 특색 있는 축제를 전주 종합경기장 내에서 통합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전주페스타 2024'는 10월 △1주차(3~6)에 전주페스타 오픈 축제와 전주비빔밥축제 △2주차(11~13) 전주국제한지산업대전과 전주독서대전 △3주차(18~20) 전주조선팔레스티널 △4주차(25~26) 전주막걸리축제와 전주페스타 클로징축제가 방문객을 맞는다.

특히, 올해는 종합경기장과 마지막을 함께하는 행사로서 '전주의 맛'을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콘츠트가 마련될 예정이다. 전주 디지털 페어 '달콤스토어'와 전주시 주요 봉사단체로 구성된 '맛있는 축제 만들기 추진단'의 '맛잔치(2주차)·맛자랑(3주차)', 전주의 술을

맛볼 수 있는 '술 BOX'(1~3주차) 등이 운영된다.

이 밖에도 지상에서 펼쳐지는 전국 최대 규모의 '드론라이프쇼'와 가족 방문객들의 관심을 사로잡을 전통놀이체험 '우리놀이터' 등 다양한 전주페스타 킬링콘텐츠를 통해 방문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는 안전하고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전주페스타를 적극 알릴 예정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올해 한층 더 풍성해진 전주페스타를 통해 시민분들과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문화도시 전주의 맛과 멋을 들뜬 마음으로 구성된 '맛있는 축제 만들기 추진단'의 '맛잔치(2주차)·맛자랑(3주차)', 전주의 술을

"국힘 전북 비하 발언은 시대착오적 행위"

野 전주시의원 등, 규탄 성명... 천서영 의원 "사회자 개인 실언 당 공식 입장 오도"

전주시의회 남관우 의장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30명과 무소속 김현덕 의원이 최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나온 전북 비하 발언 논란과 관련해 규탄 성명을 냈다.

25일 이들 의원들은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발언은 시대착오적이고 전박한 행위로 전

북도민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의원들은 성명에서 "전북은 오랜 기간 차별과 소외로 고통 받아왔으며, 이런 발언은 전북도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전북을 또다시 외면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의원들은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런 발언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고 도민 앞에 머리 숙여 공식 사과 함은 물론, 재발 방지책 마련과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전북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뿌리 뽑기 위한 당 차원의 지속적 교육과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민약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전북도민과 함께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며, 전북도민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의회 국민의힘 소속인 천서영 의원은 "사회자 개인의 진행 미수에 따른 실언을 마치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인 것으로 오도하는 것은 지역차별을 조장해 표를 얻으려는 의도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은 도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무자정 지역 차별을 조장하려는 가스라이팅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욱기 기자

전주 서신동 주민자치위-이마트 전주점, 협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동장 김은성)에서는 25일 서신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황태현)와 이마트 전주점(지점장 최화목)과 함께 '지역사회-기업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서신동과 주민자치위원회, (주)이마트는 지역사회와 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건강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다양한 지역 축제 개최, 지역 농산물 판매장 운영 등 서신동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한 상생 사업 적극 발굴, (주)이마트 전주점에서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운영 사항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에 따른 첫 번째 상생사업의 일환으로 9월 28일 개최될 서신동

"우리동네 페스타(가칭)" 행사에 이마트 전주점 야외주차장을 축제 장소로 무상 사용하기로 협의했다. 이에 우리동네 페스타(가칭)는 지역 농산물 판매, 먹거리 체험 부스 운영, 문화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으로 지역 주민들이 주축이 되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대표 축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황태현 주민자치위원장은 "이번 협약이 지역과 기업의 결속력을 다지고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화목 이마트 지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사회와 유대를 강화하고,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전주시설공단, 빙상경기장 등 4개 체육시설 무료 개방

전주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이 무더위로 지친 시민들을 위해 공단만의 특성을 심본 활용한 폭염 극복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이름하여 '세상에서 가장 큰 냉장고를 열어서!' 프로젝트다. 공단에 따르면 전주실내빙상경기장은 빙질(氷質) 관리를 위해 실내 온도를 연중 10℃ 선으로 유지한다.

공단은 이 냉장고를 여름철 무더위에 지친 시민들을 위해 활용하기로 했다. 관람석과 회의 공간을 무더위를 식힐 쉼터로 개방한다.

단체 이용 시 사전 예약을 통해 많은 인원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유휴공간도 제공한다.

화산체육관과 덕진배드민턴장, 인라인롤러경기장도 무더위 쉼터로 개방



하며, 이들 체육시설 또한 실내 온도가 23℃ 정도여서 무더위 쉼터로 손색이 없다.

무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여름에도 왕성한 체육활동을 하는 이용객들을 위해 체육시설 곳곳에 냉수기를 설치하고, 얼음물도 제공한다.

무더위에도 작업을 해야 하는 공단 직원들을 위해선 식염 포도당과 얼음조끼, 물통 등 온열질환 예방용품을 제공한다. /김욱기 기자

완주·전주 상생발전 협력체계 구축 촉구

전주시의회, 축구 결의안 본회의에 상정 예정

전주시의회(의장 남관우)가 완주·전주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과 논의기구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전주시와 완주군, 각 의회에 촉구한다.

25일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26일로 예정된 제41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정삼길(서신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완주·전주 상생발전을 위한 노력 촉구 결의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결의안은 논쟁과 상호 비방보다 완주·전주에 대한 이해와 협력 강화,

탄소와 반도체 등 다양한 소재와 장치 및 ICT 산업체의 완주지역 유치로 균형 발전을 위한 상생 협력,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완주·전주 통합 제시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전주시와 완주군, 각 의회에 통합 찬반론 활동 개입을 지양하고, 미래지향적 상호 협력체계 구축과 상생을 위한 논의기구 활성화 협력에 관한 내용도 포함했다. /김욱기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기관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익자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반하의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태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면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풍각

내아